



보도시점 : 2026. 6. 3.(수) 11:00 이후(6. 4.(목) 조간) / 배포 : 2026. 6. 2.(화)

전국 건설현장 '우기 대비 고강도 안전점검'

- 4일부터 국토부 등 12개 기관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약 3천개소 점검
- 호우·강풍 등 취약시기 대비 도심지 굴착공사 현장 등 위험요소 중점 점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다가오는 우기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월 4일(목)부터 7월 31일(금)까지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.

※ 강수량 3개월 전망(기상청, '26.5.23.) : 6~7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고, 8월은 평년과 비슷

○ 점검에는 국토교통부, 지방국토청, 공공기관,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*, 9백여 명이 참여하며, 이번 점검 대상은 6~7월 우기철에 대비하여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전국 약 3천여 개 건설현장**이다.

* 국토교통부(건설안전과), 지방국토관리청(5개), 한국도로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, 국가철도공단, 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, 국토안전관리원

** (규모별) 50억↓(57%), 50~300억(26%), 300억↑(17%) / (용도별) SOC(51%), 아파트(26%), 건축물(23%) 등

□ 주요 점검사항은 우수 침투로 인한 사면유실·지반약화, 강풍 위험 등 우기 특성을 감안해 △우기철 안전관리 및 수방대책 적정성, △배수체계 정비 및 축대·옹벽 등 취약시설 사전조치 여부, △절토부·성토부 및 사면 관리상태, △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여부, △타워크레인 전도방지 등 강풍 대비책 등이다.

○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흙막이 지보공사, 터파기 및 절토·성토 공사, 배수공사 등 위험공사 대상 점검은 외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고, △'26년 1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타 공사현장, △도심지 10m 이상 굴착공사 현장, △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.

□ 점검결과, 부실시공 및 안전·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·과태료 부과, 수사 의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.

담당 부서	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	박동주 (044-201-3573)
		담당자	팀 장	김용수 (044-201-3552)
			사무관	정진현 (044-201-4593)
			주무관	서경원 (044-201-3586)

대한민국
정책브리핑

국민이 만든
대전환의 길

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MOVE | TOMORROW